

꽃가루 알레르기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길가에 개나리꽃이 허드러지게 피어나고 아파트 단지 화단의 철쭉이 꽃망울을 수줍게 터뜨리는 완연한 봄이 왔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겨울에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을 그렇게 기다렸건만,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꽃물과 재채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던 봄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봄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10여 년의 일본 생활을 겪으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후천적으로 발병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일본 환경성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일본 국민의 42.5%가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일본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봄에 TV 광고의 절반 이상이 꽃가루 알레

르기 관련 의약품 광고라 참으로 심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남의 일일 뿐이었다. 지인 중 한 명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몸속에 꽃가루를 담을 수 있는 양동이 같은 것이 있다고 했다. 평생 그 양동이에 봄마다 꽃가루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 양동이에 찼던 꽃가루가 가득 차서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동이 크기가 작은 사람은 일찍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양동이 크기가 큰 사람은 평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의 양동이는 그리 크지 않았던 듯하다. 과학적으로는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되지만 매우 알기 쉬운 설명이었다. 그 정도로 일본인들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봄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은 매우 명확하다. 그것은 번식을 위해 대량의 꽃가루를 방출하는 삼나무 때문이다. 비교적 습기에 강해 건축용 자재와 가구, 육조 재료로 사용되는 삼나무는 원산지인 일본이다. 수백 년 전부터 일본에서 자란 삼나무가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일본 정부는 황폐해진 산림에 삼나무를 빠르게 심었다. 전쟁 후 나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삼나무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품종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부터 일본은 지진과 습기에 강한 삼나무를 이용해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빠른 도시 재건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런데 1970년대 수입 목재 가격이 하락했고, 아파트와 맨션 등 콘크리트 건물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재배한 삼나무 수요가 대폭 줄어 들었다. 이렇게 필요한 목재보다 많은 삼나무가 일본 국토에 늘어나게 되면서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같이 일본 국민의 40% 이상을 괴롭히는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바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미 높은 키로 자라버린 나무를 모두 베어 버릴 수도, 도시의 아스팔트와 시멘트도 전부 걷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모순인 것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이 시기에 알레르기 약부터 안경과 마스크 등 꽃가루 대책 상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꽃가루가 널리 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보험사기’와 설계사의 신뢰



김 지 수 협
(금융부)

‘보험 설계사’란 보험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돼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보험 설계사들이 단순히 고객을 돕는 전문가가 아닌 보험사기에 연루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 문제는 단순히 업계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일반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와 연루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

설계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9개 보험사에서 12명, 15개 GA에서 23명의 보험설계사가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의 행동은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안하는 전문가가 오히려 고객을 속이고 범죄에 가담하는 판을 짜 놓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2022년에는 1763명이, 2023년에는 1958명, 2024년에는 2160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해 이전처럼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

다만 모든 법과 규제에는 허점이 있듯이

전문가인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보험사와 GA업계에서는 제재를 받은 설계사들을 다시 채용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105개 회사 중 71개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다시 채용했다. 그만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셈이다.

사기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 누수는 물론 일반 고객들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설계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은 보험사기 설계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제재와 개정안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도적 장치와 함께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gh47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16일 (음 3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상속을 주게 되니 축복이자 복덕이다. 48년생 자기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60년생 나도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72년생 이제부터는 지난 일을 근심하지 마라. 84년생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도 강이 있다.



37년생 바다가 길을 막아 오도 가지도 못한다. 49년생 부모가 물려 준데도 기업을 운영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61년생 조직에서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73년생 피곤한 일이 행복으로 여겨진다. 85년생 닭띠와 언쟁하지 않도록 하자.



38년생 큰 부자는 절대로 인생하지 않다. 50년생 재물로 남에게 관대하면 돈이 내게로 오면서 존경을 받는다. 62년생 연장근무로 효과를. 74년생 결정 장애처럼 유무부단하여 손해. 86년생 후회해도 물거품이니 잊고 넘어야 한다.



39년생 지인에게 돈 부탁해야 소용없다. 51년생 퇴근 후 일찍 귀가를. 63년생 형제끼리 누가 잘 하나를 따지면 무엇을 하겠는가. 75년생 꿈 같은 아내가 여우같은 마누라보다 낫다. 87년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오복의 하나이다.



40년생 목언 기도를 해보라 일이 해결된다. 52년생 장사에서 상술도 능력이다. 64년생 밀리는 도로이니 일찍 나서라. 76년생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온전히 하는 요소이다. 88년생 시어머니들이 만나면 괴상한 며느리만 있다.



41년생 재운이 상승이니 주식 투자도 운수대길이다. 53년생 지지부진한 답답함만 있다. 65년생 소개팅이 있는 날. 77년생 음주운전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된다. 89년생 사람 치매 증상이 인품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42년생 말의 흉수 시절 조심은 하자. 54년생 결혼이 필수 시대였으나. 66년생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78년생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니 때를 놓치지 않도록. 90년생 늦지 않았으니 노력해서 재물의 불평등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43년생 요구가 많은 배우자로 골치가 아플 것. 55년생 동료가 이기적이긴 하나 영업력은 우수. 67년생 말은 일을 매듭짓는다. 79년생 물 흐르듯 인간 세상의 원칙은 있는 법. 91년생 상대에게 위협을 받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빈축을 산다.



44년생 젊어서부터 미모가 있으나 인덕이 박하다. 56년생 너무 앞서면 꽃잎이 피기도 전에 스러진다. 68년생 서두르는 결혼이 이혼을 부른다. 80년생 피를 부리다가 발등 찍는 격이 된다. 92년생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 자체를 성찰하도록.



45년생 작은 것에도 긍정적이나 재물이득과 연관된다. 57년생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69년생 능력이 남보다 열등해도 고인하지 말자. 81년생 삶의 기회는 늘 찾아오기 마련. 93년생 주말 낚시는 귀신들러도 피곤을 가져온다.



46년생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니 사장님 얘기로 썬지 마라. 58년생 빛과 그림자는 있게 마련. 70년생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일이 해결. 82년생 성급함을 자제하고 밥을 천천히 먹도록. 94년생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47년생 진리는 자연에서 찾아보도록. 59년생 싸우다가 주먹질이 오가지 않도록. 71년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찾는 것은 비현실. 83년생 구습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서. 95년생 주식시장에서 예측의 기법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김상회의四季

월광사의 청년밥상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에서는 청년 밥상 이름으로 부담 없는 한 끼 밥을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는 매일 제공했었는데 요즘은 사정상 1주일에 1~2회만 하고 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밥값은 2000원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사실상 무료다. 무료로 제공하면 식사를 하는 분들이 혹여나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적은 금액으로 표시했다. 그 정도 액수를 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밥값을 직접 받지 않고 한쪽에 놓여있는 기부금 통에 넣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엔 아직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 넓게 보면 식량 사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그렇다. 그런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분들이 조금씩 기부를 하면 사회 전체로 온기가 퍼질 것이다.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뜻 지폐 몇 장을 기부금 통에 넣는 분들도 있다. 청년 밥상을 필자 혼자 힘으로만 운영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월광사 신도회장님과 신도분들의 힘이 크다. 그분들은 쌀을 지원해주고 좋은 식재료도 가져온다.

사실 청년 밥상을 유지하는 데는 필자의 사재가 많이 들어간다. 후원만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청년 밥상의 밥값이 저렴하지만 식자재의 품질은 최고품질로 사용한다. 청년 밥상에서 식사한 분들이 음식 맛에 감탄하는 건 좋은 식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국내산이다 보니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필자의 사재를 투자해야 한다. 필자가 대단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싶어서 청년 밥상을 운영하는 건 아니다. 밥상의 작은 씨앗이 커져서 기부 문화가 피어나기를 하는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5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